

방탄소년단의 소프트 파워 효과*

정태일** 충북대학교

최예나*** 충북대학교

김연희**** 충북대학교

논문요약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군사력 위주의 하드 파워에서 문화와 도덕 등이 중요시되는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었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상보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자국의 이익을 얻는 능력이다. 본 연구는 소프트 파워적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한국 전통문화를 안무에 적용하여 한국 문화유산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정체성인 한글을 곡에 적용하여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유엔의 유니세프활동과 원폭 티셔츠, 나치문양의 모자, 한국전쟁에 대한 소견 등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켰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소프트 파워 효과는 한국 전통춤을 재구성하여 한국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국어로 구성된 가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였으며,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변에 확산시켜 인류에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확산시켰다.

주제어 : 소프트파워, 방탄소년단, 전통문화확산, 한글세계화, 인권보편성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가 2020년 12월 28일 대전광역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전략과 팬덤 분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I. 서론

국제사회는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급변하고 있다. 냉전체제에서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의 변방국가로 인식되어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체제에서 한국은 군사력에 아닌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신흥강대국을 탈피해 세계의 중심국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가 군사력 위주의 하드 파워에서 경제력에 바탕을 둔 문화와 도덕 등의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프트 파워로 전환된 1990년대부터 두드러졌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류(韓流)의 원조로 인식되는 K-드라마가 일본을 거쳐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한류가 본격화된 것은 2002년에 일본의 NHK방송에서 방영된 K-드라마인 ‘겨울연가’이다. K-드라마인 ‘겨울연가’의 열풍은 일본을 넘어 중국,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이후 K-팝, K-뷰티, K-패션, K-푸드, K-무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최근 한류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K-팝은 대형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을 통해 한국시장을 벗어나 아시아를 점령한 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특히, 원더걸스의 ‘Nobody’와 소녀시대의 ‘Gee’ 등은 미국과 일본에서 K-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K-팝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6월에 제3집 정규앨범인 「Love Yourself: Tear」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 1위를 차지한 후 2020년 12월까지 5번이나 1위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K-무비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4개 부분에서 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가 되었다.

한류는 K-드라마로 시작해 K-팝, K-무비, K-패션, K-푸드 등으로 확산되어 한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성장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에 한류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한국사회에 대한 재해석을 위한 연구대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을 통한 K-팝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윤여광(2019, 13-25) 등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스토리텔링과 글로벌 팬덤 현상을 지적하였다. 둘째, 류은주·변정민(2019, 167-218) 등은 방탄소년단의 활동 패턴 분석을 통해 K-팝의 소셜미디어 활동방안과 브랜드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성공한 K-팝이라는 문화콘텐츠로만 분석되고 있어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한류가 지닌 많은 한계를 극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척도가 기존의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변화되었다는 현실에서 방탄소년단이 주는 소프트 파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한국의 전통문화확산, 한국어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의 보편성 효과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이론적 검토

국제정치에서 국가능력은 군사력 등과 같은 물리적 강제에 근거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 등과 같은 자발적 동의에 근거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정치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냉전체제에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이 국가능력의 핵심 변수로 인식되었으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탈냉전체제에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능력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은 측정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국가의 힘을 인식하는 하드 파워(hard power)가 중요시 되었다. 하드 파워는 한 국가가 위협과 보상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는 능력으로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 등이 활용된다. 하드 파워는 인구, 지리, 산업능력과 군사력 등을 통해 분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계량화되고 있다(박상식 2005, 96-104).

첫째, 하드 파워로서 인구는 인구 수, 연령분포, 인구변화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인구가 적은 국가보다 강력한 것은 확실하며, 노동이 가능한 연령분포와 출산율과 사망률에 따른 인구변동상태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

둘째, 하드 파워로서 지리는 불변적 요소로서 위치, 기후, 크기 등이 주요한 요인이다. 위치는 강대국들과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면 그들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 기후는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 가장 큰 도시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온대 기후에 위치하고 있다. 크기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점령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점령하더라도 통치하기가 어려워 그만큼 완전한 정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에 지리적 요소로 크기는 핵무기 등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셋째, 하드 파워로서 산업능력은 농업, 수산, 공업, 상업, 서비스업 등 인간의 노동과 기계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과 용역 등을 말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자원은 국력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능력 중에서 공업능력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공업발전수준이 강대국의 표준이 된다. 산업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는 국민총생산(GNP), 1인당 에너지 소모량 등이 있다.

넷째, 하드 파워로서 군사력은 인력, 무력, 통수력으로 구성된다. 군사력이 국력으로 활용되는 것은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인력의 강약은 군대의 수와 능력(사기, 기율,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무력의 강약은 무기의 종류, 수 및 성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통수력은 군통수기관의 질을 말하는 것으로 군대와 무기를 연결함으로써 군사력을 창조하는 역할을 말한다. 통수력은 군대의 질

에 영향을 미치고, 인력의 질은 다시 무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군사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군사력의 측정은 총국방비, 국민총생산에 대한 국방비 비율, 총 군대 수 등에 의해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 본 하드 파워적 관점에서 국가능력에 대한 인식은 안보와 생존을 중요시하는 냉전체제의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다방면에 거쳐 확대되는 탈냉전체제에서는 하드 파워적 관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조셉 나이(Joseph Nye)는 하드 파워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개념으로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주장하게 되었다. 소프트 파워는 1990년대를 전후한 국제질서에 대해 조셉 나이(Joseph Nye)가 기존의 국제정치에서 중요 변수로 인식하지 않은 동의와 도덕에 대한 연관되는 개념으로 처음 제시하였다. 소프트 파워는 물리적 수단인 군사력 등과 같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하드 파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다. 소프트 파워에 대해 조셉 나이는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자국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는 것이다(윤여준 2007, 187-188).

조셉 나이에 따르면, 소프트 파워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그 힘이 달라진다. 소프트 파워는 첫째로 호감을 사고 있는 지역에서 그 국가의 문화이고,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따르고 유지하는 그 국가의 정치적 가치관이며, 셋째로 정당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국가의 대외정책이다(Nye 저, 홍수원 역 2004, 8-9). 물론 조셉 나이 자신도 소프트 파워가 미국의 패권안정을 위해 제기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소프트 파워가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의 권력현상을 모두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시각을 부인하지는 않았다(조기제 2016, 92). 그렇지만 조셉 나이는 미국이 냉전체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소프트 파워인 미국의 대중문화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았다. 최근 붕괴된 소련을 대신하는 중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미국에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의 경쟁력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은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에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중국인 학자들의

입장도 조셉 나이의 인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정치의 하드 파워가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는 것은 냉전체제의 양극적 사고가 탈냉전체제의 다극적 사고로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행되었다. 탈냉전체제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결성의 증대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자국의 외교정책들에 대해 이념적 논쟁이 아닌 가치적 논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Heywood 저, 김계동 역 2017, 219-224). 이는 국제정치가 하드 파워에 기반한 강대국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초래하여 강대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21세기에 들어 소프트 파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했던 20세기의 인위적인 장벽이 21세기 들어 혁명적인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급격히 붕괴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확대되어 소프트 파워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만 가지고 국가능력의 모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자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조합한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을 국제정치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마트 파워(smart power)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하드 파워와 이념, 문화, 제도 등의 소프트 파워를 융합한 것이다.¹⁾ 국제정치에서 스마트 파워를 제기한 것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들 중 어느 하나로 국가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국제사회는 최첨단의 정보통신 발달로 모두가 연동되는 하나의 정보사회가 됨으로써 국가를 초월한 다양한 문화적 가치인 소프트 파워가 국제사회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을 뛰어넘어 소프트 파워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에 소프트 파워적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한국의 국가능력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스마트 파워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구사한 외교전략으로 나이의 입장에서 보면 관타나모수용소보다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Nye 저, 홍수원 역 2014).

Ⅲ. 소프트 파워로서 방탄소년단의 효과

1. 한국의 전통문화확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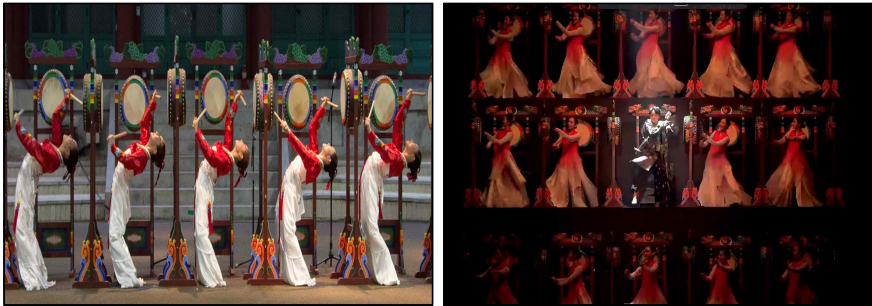
근대국가는 하나의 민족을 기본 단위로 형성되었으며, 그 국가의 정체성은 국민들이 다른 국가와의 차별성을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향상시키는데서 출발한다. 루소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예속을 탈피하여 각 민족이 민족자결을 유지하면서 인류 전체가 자유와 평등을 다 같이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자유와 조국애, 세계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융합하며, 각 민족은 자랑할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그 민족의 고유한 활동을 통하여 인류의 공동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루소에 따르면, 각각의 민족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정치적 지배와 간섭이 배제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절대주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루소의 민족국가는 독립된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같은 습관, 같은 사회적 이념을 국민들이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루소는 민족정신의 보급방법으로, 첫째 애국자를 찾아 포상하고, 둘째 가치있는 민족습관을 되찾고, 셋째 민족적인 체육경기의 전국적인 행사를 장려하고, 넷째 민족예술의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며, 다섯째 모든 사람이 민족성원으로의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민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루소의 민족국가는 자유와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이상을 가능하게 하며, 특정 국가의 민족문화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된다는 것이다(김용민 2004, 187).

그렇다면 루소가 주장한 민족예술의 창의적 개발과 보급을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적용하였나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안무에 적용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2월의 MMA(Melon Music Awards)공연 중

「IDOL」을 부르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intro 퍼포먼스에 융합시켜 한국의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²⁾ 당시 공연에서 약 4분인 「IDOL」곡을 6분 30초로 편집하였으며, 그 중 2분 40초를 intro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IDOL」 intro의 첫 번째 장면에서 한국의 전통인 ‘북’과 ‘승무’를 활용한 한국의 전통무용인 ‘삼고무’³⁾가 등장하였다.

<그림 1> 이매방 선생님의 삼고무(왼쪽)와 방탄소년단의 삼고무(오른쪽)



출처: <https://chaegamdoc.tistory.com/15>; <https://www.youtube.com/watch?v=ayG1-igrwy8>(검색일:2020/12/20).

「IDOL」 intro의 두 번째 장면에서 한복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빨간색 부채를 활용하여 ‘부채춤’⁴⁾과 ‘한량무’⁵⁾를 적절히 조합시켜 한국의 전통무용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두 번째 장면에서 방탄소년단은 ‘부채춤’과 ‘한량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느끼는 자괴감을 조선시대 한량들이 느끼는 ‘한’과 ‘풍류’를 자연스럽게 융화시키고자 하였다.

2) <http://www.news2day.co.kr/116082>(검색일: 2020/12/22).

3) ‘삼고무’는 1960년대에 한국의 전통예술인 ‘승무’와 ‘살풀이춤’을 활용해 이매방 선생님이 창작한 것으로 북의 개수를 3개로 늘려서 활용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4) ‘부채춤’은 한국의제약적 무속에서 무당이 들고 추던 부채에서 소재를 얻어 창작된 춤으로 김백봉 선생님이 창작한 춤으로 1954년 11월 26일에 처음 발표되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0b1166a>(검색일: 2020/12/20).

5) ‘한량무’는 진주 지방에 전래 내려오는 무용극으로 양반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인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으로 하는 무연무용극이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1568>(검색일: 2020/12/20).

<그림 2> 부채춤(왼쪽), 한량무(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부채춤과 한량무(오른쪽)



출처: <https://blog.naver.com/supiasoop/221543390752>:<https://blog.naver.com/ryudance03/222096484496>:<https://www.youtube.com/watch?v=ayGl-igrwy8>(검색일:2020/12/20).

「IDOL」 intro의 세 번째 장면에서 오색의 색동저고리와 다양한 탈을 활용한 ‘봉산탈춤’⁶⁾을 전개하였다. 방탄소년단은 ‘봉산탈춤’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한’과 ‘억압’에 대한 속박의식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을 극대화시켜 자신의 정체성을 극적으로 표출하였다.

<그림 3> 봉산탈춤(왼쪽), 방탄소년단의 봉산탈춤(오른쪽)



출처: <http://cafe.daum.net/BTFsociety/NCQ4/437?q=%EB%B4%89%EC%82B0%ED%83%88%EC%B6%A4&re=1>:<https://www.youtube.com/watch?v=ayGl-igrwy8>(검색일:2020/12/20).

6)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전승되다가 1915년경 사리원으로 옮겨 전승되던 탈춤으로 26개의 가면이 사용되며, 탈놀이는 사당춤, 사자춤, 양반춤, 미얄춤 등 제7과장으로 구성된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3902>(검색일: 2020/12/20).

「IDOL」 intro의 네 번째 장면에서 ‘북청사자놀음’⁷⁾과 ‘사물놀이’⁸⁾를 융합해 신명나는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전개하였다. 방탄소년단은 ‘북청사자놀음’이 지니는 장수에 대한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단결과 협동을 통해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표현하였다. 방탄소년단이 ‘사물놀이’에서 사용한 각양각색의 전통악기는 갈등으로 대립하는 한국인들의 화합하는 공동체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IDOL」 intro의 네 번째 장면에서 화합을 상징하는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활용해 북청사자와 함께 다양한 장단을 연주하며 휘몰아치는 춤사위는 한국 전통예술이 가지는 풍류를 세계인에게 선사해 감동을 주었다(조영인 2019, 32).

<그림 4> 북청사자놀음(왼쪽), 사물놀이(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북청사자놀음과 사물놀이(오른쪽)



출처: <http://cafe.daum.net/hjos/4R5a/131?q=%EC%82%AC%EB%AC%BC%EB%86%80%EC%9D%B4&re=1>; <https://blog.naver.com/ahnkim97/220278608737>; <https://www.youtube.com/watch?v=ayGl-igrwy8>(검색일:2020/12/20).

- 7)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적 민속놀이로 악귀를 내쫓고,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와 태평을 기원하며, 아이를 태워주면 수명이 장수한다고 하기도 하고, 사자털을 몰래 베어두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다. <http://lionmp.co.kr>(검색일:2020/12/20).
- 8) ‘사물놀이’는 농악, 짝두름, 설장구놀이, 비나리, 판굿, 칠채굿 등의 풍물음악이었으나, 여기에서 음악만 심화시키고 발전시켰다. ‘사물놀이’는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팽과리, 장구, 북, 징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으며, ‘김덕수사물놀이패’가 가장 대표적이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0198a>(검색일: 2020/12/20).

위에서 볼 때 방탄소년단의 「IDOL」 intro 부분은 미국을 위시한 외래적인 현대 팝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한국적이며,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담론을 유의미하게 보여주고 있다(신현준 2005, 14). 특히, 「IDOL」의 가사 중 ‘얼썬 좋다, 지화자 좋다, 덩기덕 쿵더러러’와 같은 전통적 추임새는 한국적 음악 냄새를 극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IDOL」의 intro에서 보여준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인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는 사례로 당시 방탄소년단의 공연 모습에 세계의 팬들은 한국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팬들은 한국의 전통예술의 환상적인 모습에 열광되어 한국의 전통예술에 대한 다양한 호감적인 반응을 보였다(조영인 2019, 31).

2. 한국어의 세계화 효과

언어는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맥을 같이 한다. 특정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능력이 줄어들거나 우세한 언어의 영향을 받아 소멸하기도 한다.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 능력을 잃게 된다. 언어의 소멸은 존재의 소멸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각의 민족과 국가에서 언어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대략 7,000여개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언어는 2주에 1개씩 사라져 21세기가 끝나는 시점에 현존하는 언어의 90%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⁹⁾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는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측면에서 규정해 설명하고 있다. 헤르더는 한 영역 내의 민족이 아니라 국가, 언어, 예술, 문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은 인간, 도덕, 종교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민족정신의 징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헤르더는 민족이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191756131&code=970
100(검색일: 2020/12/20).

념을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헤르더는 언어를 민족성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으로 보아 언어가 계층 간의 연계를 확산시킨다고 보았다(박채용 2000, 266-267).

방탄소년단의 언어정체성은 헤르더가 주장한 민족주의의 중요 개념인 언어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체성인 한글을 세계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싱글앨범인 『2 Cool 4 Skool』의 ‘No More Dream’으로 데뷔해 2018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음악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금까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가 되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언어적 특성을 모든 곡에 담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싱글 앨범이든, 정규 앨범이든 관계없이 앨범명은 모두 영어로 구성하였으며, 앨범에 수록된 곡명들은 영어와 한국어, 숫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총 4개의 정규앨범을 발표하였는데, 정규앨범의 곡명에 사용된 언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방탄소년단 정규앨범의 곡명에 나타난 언어 현황

| 순서 | 발표일 | 앨범명 | 곡명의 언어 수 | | |
|-----|-------------|------------------------|----------|----|----------|
| | | | 한국어 | 영어 | 한영혼용(숫자) |
| 제1집 | 2014.08.20. | DARK & WILD | 6 | 6 | 2 |
| 제2집 | 2016.10.10. | WINGS | 3 | 12 | 0 |
| 제3집 | 2018.05.18. | LOVE YOURSELF 轉 Tear | 2 | 8 | (1) |
| | 2018.08.24. | LOVE YOURSELF 結 Answer | 2 | 22 | 1 |
| 제4집 | 2020.02.21. | MAP OF THE SOUL | 0 | 19 | 0 |

방탄소년단의 정규앨범에 사용된 언어는 크게 한국어와 영어이다. 하지만 <표 1>에 보듯이 방탄소년단의 정규앨범명은 전부 영어로 구성되었으며, 곡명에서는 한국어 비중이 제1집에서 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어 최근 발표한 제4집에서는 전무하다. 이렇게 보면 방탄소년단이 K-팝의 세계화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한국인으로 한국어의 존

재감을 무기력하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영어 곡명을 통해 세계인과의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빌보드 차트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곡들을 보면, 비록 곡명이 영어로 되어 있으나 한국어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인과의 음악적 공감을 통해 한국어 세계화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러브 유어셀프 轉 티어’, ‘러브 유어셀프 結 앤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맵 오브 더 솔: 7’ 등으로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하였다.¹⁰⁾ 최근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Dynamite’는 전부 영어 가사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실례가 되지는 않으나 빌보드 핫 100의 1위에 오른 ‘Life Goes On’의 가사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 붉은 기다림을 몰라서 / 눈치 없이 와버렸어 / 발자국이 지워진 거리 / 여기 넘어져있는 나 / 혼자 가네 시간이 / 미안해 말도 없이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 흠뻑 젖어버렸네 / 아직도 멈추질 않아 /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 그럼 될 줄 알았는데 / 나 겨우 사람인가 봐 / 몹시 아프네 /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 겨울이 오면 내쉬자 /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 출구가 있긴 할까 / 발이 떴지질 않아 oh / 잠시 두 눈을 감아 / 여기 내 손을 잡아 / 저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 하루가 돌아오겠지 / 아무 일도 없단 듯이 / Yeah life goes on /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 또 하루 더 날아가지 / On my pillow, on my table / Yeah life goes on / Like this again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 /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 아직 여태 안 변했네

10)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2/01/CKKY7IBBPVG2TFO7DS TUY7CCBI(검색일: 2020/12/10).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 멈춰있지만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깐

끝이 보이지 않아 / 출구가 있긴 할까 / 발이 떴지질 않아 않아 oh / 잠시 두 눈을 감아 / 여기 내 손을 잡아 / 저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 하루가 돌아오겠지 / 아무 일도 없던 듯이 / Yeah life goes on /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 또 하루 더 날아가지 / On my pillow, on my table / Yeah life goes on / Like this again
I remember / I remember / I remember / I remember”

사실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은 전부 영어로 된 ‘Dynamite’의 성공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미국의 유력한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는 2020년 11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한글로 이루어진 ‘Life Goes On’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둔 낡은 서구적 음악 산업의 관습을 전복시킨 것”이라고 하였다.¹¹⁾ 지금까지 비영어권 가사로 이루어진 곡이 빌보드 핫 100 1위에 정상에 오른 경우는 ‘Life Goes On’까지 포함해 총 8곡이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1963년에 일본인 사카모토 규(坂本九)의 ‘스키야키’¹²⁾가 처음이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정상에 오르자 한국어에 대한 위상은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의 정상을 차지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나타났다. 2018년 7월 11일에 영국 BBC 방송은 미국의 현대언어학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의 통계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3~2016년 사이에 미국 대학의 언어 전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어 전공 채택은 오히려 16%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1

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1_0001253734&cID=10601&pID=10600(검색일: 2020/12/20).

12) 1963년에 사카모토 규의 ‘위를 보고 걷자(上を向いて歩こう)’란 노래는 미국에서 ‘스키야키(sukiyaki)’란 제목으로 발매되어 3주 연속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였다. <https://behindbusan.tistory.com/380>(검색일: 2021/01/11).

만4천명으로, 20년 전 163명에서 85배나 늘었다는 것이다.¹³⁾ 또한 미국의 현대언어학회가 2019년 6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싶은 외국어 상위 10위에 한국어가 처음으로 들어갔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늘어난 한국어의 인기는 미국 젊은 이들 사이에서 K-팝 등 한류의 인기가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한국어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어져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도 입증되었다. 지난 2,000년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는 4,85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만 4842명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¹⁴⁾

이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영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 노래이기 때문에 팬들이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마치 지난 1970-80년대 국내에서 서구적인 팝문화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영어를 배우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해외 팬들에게도 일어난 것이다.¹⁵⁾

<그림 5> 미국 뉴욕 시티필드 파크 공연장 앞(왼쪽), 런던국제언어박람회 한글관(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현황(오른쪽)



출처: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21>; <https://if-blog.tistory.com/9981>; <http://www.gimhaenews.com/ArticleView.asp?intNum=18276&ASection=001008>(검색일: 2020/12/20).

13)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645>(검색일: 2020/12/20).

14) https://www.jangyu.net/board/bbs/board.php?bo_table=news_notebook&wr_id=1440(검색일: 2020/12/20).

15)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21>(검색일: 2020/12/20).

방탄소년단으로 비롯된 한국어에 대한 열풍은 한글의 세계화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를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면, 방탄소년단의 대한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활동무대인 미국에서 K-팝과 한국어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미국 내의 한국관련 동호회를 통해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동호회 수는 2019년 기준으로 56개가 있었다. 미국 내에 한국과 관련된 동호회의 분포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체육(태권도) 등 다양하게 분포되지만 그 중에서 K-팝의 비중이 전체의 60.7%인 34개이다. 동호회 개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어는 6개, 음식은 4개, 친교모임은 3개, 한국드라마는 1개, 한국문화는 8개, K-팝은 34개이다. 동호회의 회원 수에서 보면, 전체 6,077,421명 중 K-팝 동호회 회원이 46,040,749명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다(김명광 2020, 12-13). 이를 통해 볼 때 미국 내의 한국어 열풍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인 ‘Learn! KOREAN with BTS’를 2018년 8월 24일에 출시하였다. 방탄소년단의 ‘Learn! KOREAN with BTS’ 교재는 방탄소년단을 따라 한국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듯이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소재로 하여 한글 자음과 모음, 기본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교재는 표준발음을 들려주는 소리펜, 한글자판 스티커, 소리펜이 연동하는 한글 노트 등 4권으로 되어 있다. 이 한국어 교재는 외국의 여러 대학, 예를 들어 미국의 미들베리대학, 프랑스의 파리고등사범대학, 에덱비즈니스스쿨, 이집트 아인삼스대학, 베트남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과 탕롱대학 등에서 한국어 교재로 채택되었다.¹⁶⁾

16)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869409> (검색일: 2021/01/05).

3. 인권과 평화의 보편성 효과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와 지위, 자격을 의미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법적인 관할 지역이나 민족과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인권의식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3세대로 변화되어 왔다. 제1세대의 인권은 자유권적 인권으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 등이다. 제2세대 인권은 사회권적 인권으로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식주와 보건의료 등), 교육을 받은 권리 등이다. 제3세대 인권은 집단권으로 평화에 대한 권리, 인도적으로 재난을 구제받을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이다. 제1세대의 자유권적 인권은 모든 인간이 침해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2세대의 사회적 인권은 국가와 사회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3세대 인권은 인류의 항구적 존립을 위하여 평화와 생태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서구적인 인권의 개념은 한국의 전통적 인권의식인 홍익인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홍익인간은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구현하는 서구적 인권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8, 80).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보편적 평화사상이자 인권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과 팬클럽인 ‘아미(ARMY)’가 보여준 행위들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인권과 평화에 대한 보편성을 어떻게 실천하는 지를 보고자 한다.

인권과 평화의 보편성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장면은 2018년 9월 24일의 유엔연설이다. 방탄소년단의 유엔연설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의 청년 아젠다인

17)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6%8C>(검색일: 2020/12/20).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에서 있었다. 당시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김남준이 연설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방탄소년단은 유니세프와 함께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유니세프와 함께 한 ‘End Violence’ 프로그램은 세계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여러분의 목소리와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피부색은 무슨 색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¹⁸⁾

방탄소년단의 유엔연설은 방탄소년단이 한국을 넘어 세계 청소년들의 가치적 정서를 대변하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정문주 외 2018, 558).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2017년 11월 1일이며, 이때부터 유니세프의 아동폭력근절 캠페인 ‘End Violence(폭력은 끝)’을 후원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과 아미,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기부한 금액은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24억 원이 넘었다.¹⁹⁾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금은 가정·학교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전 세계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방탄소년단의 유엔연설과 유니세프활동을 고려해 보면, 첫째 유니세프와의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노력한 것은 제3세대 인권인 평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엔연설에서 어느 국가 출신이든, 어떤 피부색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한 것은 제1세대 자유권적 인권을 넘어 제2세대 사회권적 인권을 확장시켜 제3세대 집단권적 인권을 통해 인류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18) <https://www.youtube.com/watch?v=sTav3JaHU2k>(검색일: 2020/12/20).

19)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가 기부한 금액은 24억원 중 7억원에 해당된다. 한편, 2019년 11월까지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앨범의 판매 순이익의 3%, 캠페인 공식 굿즈 판매 순익 전액 등을 기부하기로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85616?cloc=rss|news|society>(검색일: 2021/01/05).

유니세프 활동은 서구적 인권의 보편성을 그의 팬클럽인 아미와 함께 확장시켰으며, 이는 한국의 고유사상인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성에 대한 이상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방탄소년단의 유엔연설과 기금활동만으로 방탄소년단이 인권과 평화의 보편성을 인식하면서 활동했다고 보는 데는 경우에 따라 한계가 있다.

인권과 평화의 보편성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장면은 방탄소년단 멤버의 원폭 티셔츠 착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방탄소년단 멤버의 원폭 티셔츠는 2018년 3월에 있었던 것인데 한국 네티즌에 의해 10월 중순에 화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원폭 티셔츠에는 ‘우리의 역사’, ‘해방’, ‘한국’을 뜻하는 영문과 함께 원폭 투하 후 버섯구름이 오르는 사진과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프린트되어 있었다.²⁰⁾ 원폭 티셔츠가 논란이 되자 유대인단체 지몬비젠탈센터(Simon Wiesenthal Center, SWC)에서도 방탄소년단이 과거에 나치 친위대 문양(SS)이 장식된 모자를 착용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

<그림 7> 방탄소년단이 착용한 나치문양의 모자(왼쪽), 원폭 티셔츠(오른쪽)



출처: <http://www.vival100.com/main/view.php?key=201811130100049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588.html(검색일: 2020/12/20).

20)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10_0000469408&cID=10101&pID=10100(검색일: 2020/12/20).

방탄소년단의 나치문양의 모자와 원폭 티셔츠의 착용에 대해 지문비젠탈센터 부소장인 랍비 에이브러햄 쿠퍼(Rabbi Abraham Cooper)는 2018년 10월 11일에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하여 원폭 티셔츠는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티셔츠”라고 규정하였으며, 나치SS(슈츠슈타펠)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촬영하고 콘서트에서 나치 문양과 ‘무시무시하게 유사한(eerily similar)’ 깃발이 등장한 것을 지적하면서 “유엔연설에 초청된 방탄소년단이 일본과 나치즘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²¹⁾

이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인 빅히트는 원폭 피해자 분들에게 상처를 드릴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수를 못한 채 아티스트가 착용하면서 원폭 피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하였으며, 화보촬영에서 과거 나치문양이 있는 모자를 착용한 일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수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릴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였다.²²⁾

방탄소년단의 원폭 티셔츠와 나치문양의 모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에 관련된 것으로 비록 전쟁의 희생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가 논란의 여지에 대해 사과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전체주의적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창작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제3세대 인권인 평화에 대한 권리와 전쟁의 참화에서 비롯된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원폭 티셔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당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는 한·일간의 미묘한 역사적 맥락을 영어로 외신에 알리기도 하였으며,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²³⁾ 특히, 원폭 티셔츠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

21)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81112/92840632/1>(검색일: 2020/12/20).

22) <http://osen.mt.co.kr/article/G1111031422>(검색일: 2020/12/20).

23) <https://news.joins.com/article/23485616?doc=rsslnews|society>(검색일: 2021/01/05).

의 식민지 지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원폭 티셔츠와 나치문양의 모자는 보는 관점에서 따라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서구적인 인권개념과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인류애를 고려할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했다고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인권과 평화에 대한 보편성에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장면은 ‘밴플리트상’에 대한 수상 소감과 관련된 문제이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10월 7일에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²⁴⁾가 주는 ‘밴플리트상’을 받은 후 리더인 김남준이 수상 소감으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²⁵⁾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의 희생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중국의 관영언론이 인용 보도해 논란이 커졌다. 당시 중국 누리꾼은 “방탄소년단이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²⁶⁾고 비난하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장하였다.

방탄소년단의 ‘밴플리트상’의 수상 소감은 두 번째 장면인 원폭 티셔츠와 나치문양 모자와 유사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두 장면을 통해 전쟁에 대한 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평화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나아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 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통해 인류가 상호 간의 존중의식을 통해 공생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4)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는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미국의 저명인사들에 의해 창설되어 한미 양국의 정책, 기업, 경제, 교육, 예술 그리고 영화에 관해 전문성 있고 편견 없는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며,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고 있다.

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4008010&wlog_tag3 (검색일: 2020/12/20).

26)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12026800038?did=1947m>(검색일: 2020/12/20).

IV. 결론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 국가 간의 인위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군사력과 경제력에 근거한 하드 파워가 약화되는 반면에 문화와 가치, 도덕적 권위에 대한 정당성인 소프트 파워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영국 월간지 모노클(Moncler)은 군사적 조치나 경제적 제재 등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하드 파워가 아닌 문화, 예술 등의 매력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 파워에서 한국은 독일에 이어 2위로 평가하였다.²⁷⁾ 모노클의 평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21세기 들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정보통신 등과 같은 기술의 진보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부상하였으며, K-드라마로 시작한 한류열풍이 그 영역을 K-팝, K-무비, K-푸드 등으로 확산되어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들이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성공은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모델로 K-방역을 거론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21세기 들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급상승한 것은 한류의 확산과 첨단기술의 강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 문화, 예술 등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확산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미친 영향은 2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첫째, 호감을 주는 그 나라의 문화이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가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친근감을 만들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예술을 공연장에서 재구성해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에 대한 공

2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0508.html(검색일: 2020/12/20).

감대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한국어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둘째,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 나라의 정신적 가치내지는 도덕적 권위이다. 방탄소년단은 비록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원폭 티셔츠, 나치문양 모자, 한국전쟁에 대한 소감 등을 통해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저변에 확산시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 인권과 평화의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우처럼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에 의해 국가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는 강압적인 하드 파워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소프트 파워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다. 개방화된 국제사회에서 국가역량에 평판은 극단적인 보호주의에 근거하기 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류로 시작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소프트 파워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 예술 등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명광. 2020. “BTS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 영향도에 대한 일고-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5집, 12-13.
-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철학』. 고양: 인간사랑. 187.
- 류은주·변정민. 2019. “K-Pop의 한류 지속을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 『문화와 융합』 제41권 3호, 167-218.
- 박상식. 2005. 『국제정치의 이해』. 서울: 일진사. 96-104.
- 박재용. 2000. 『서양정치사상사4』. 서울: 세계아기선교출판국. 266-267.
- 신현준. 2005. “K-pop의 문화정치(학)-일경하는 대중음악에 관한 하나의 사례.” 『언론과 사회』 제13권 3호, 14.
- 윤여광. 2019.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3권 3호, 13-25
- 윤여준. 2007.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서의 한류가 갖는 의미.” 『엔터테인먼트연구』 제7호, 187-188.
- 정문주·김준희·김수임. 2018. “BTS의 노래와 유엔연설문을 소비하는 청소년의 정서태 색과 심리표상.” 『문화와 융합』 제40권 8호, 558.
- 조기제. 2016.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의 한국: 가능성과 과제.” 『평화학논총』 제6권 1호, 92.
- 조영인. 2019. “K-POP과 전통예술의 융합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전통예술의 대중화 방안 연구: BTS의 IDOL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3권 2호, 31-32.
-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8.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백선서당. 80.
- Andrew Heywood 저. 김계동 역. 2017.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19-224.
- Joseph S. Nye 저. 홍수원 역. 2004. 『소프트 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8-9.
- <http://cafe.daum.net/hjos/4R5a/131?q=%EC%82%AC%EB%AC%BC%EB%86%80%EC%9D%B4&re=1>(검색일:2020/12/20).
- <http://lionmp.co.kr>(검색일: 2020/12/2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191756131&code=970100(검색일: 2020/12/20).
- <http://osen.mt.co.kr/article/G1111031422>(검색일: 2020/12/20).
-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81112/92840632/1>(검색일: 2020/12/20).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588.html(검색일: 2020/12/20).
- <http://www.news2day.co.kr/116082>(검색일: 2020/12/22).
-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21>(검색일: 2020/12/20).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645>(검색일: 2020/12/20).
- <http://www.vival100.com/main/view.php?key=2018113010004926>(검색일: 2020/12/20).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3902>(검색일: 2020/12/20).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1568>(검색일: 2020/12/20).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0b1166a>(검색일: 2020/12/20).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0198a>(검색일: 2020/12/20).
<https://behindbusan.tistory.com/380>(검색일:2021/01/1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0508.html
 (검색일: 2020/12/20).
<https://blog.naver.com/ahnkim97/220278608737>(검색일:2020/12/20).
<https://blog.naver.com/ryudance03/222096484496>(검색일:2020/12/20).
<https://blog.naver.com/supiasoop/221543390752>(검색일:2020/12/20).
<https://chaegamdoc.tistory.com/15>(검색일:2020/12/20).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6%8C>(검색일: 2020/12/20).
<https://news.join.com/article/23485616?cloc=rss|news|society>(검색일: 2021/01/05).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10_0000469408&cID=10101&pID=1010
 0(검색일: 2020/12/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1_0001253734&cID=10601&pID=1060
 0(검색일: 2020/12/20).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2/01/CCKY7IBBPVG2TFO7DSTUY7CCBI(검색일: 2020/12/10).
https://www.jangyu.net/board/bbs/board.php?bo_table=news_notebook&wr_id=1440(검색일: 2020/12/2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869409>(검색일: 2021/01/0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4008010&wlog_tag3(검
 색일: 2020/12/2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12026800038?did=1947m>(검
 색일: 2020/12/20).
<https://www.youtube.com/watch?v=ayGl-igrwy8>(검색일:2020/12/20).
<https://www.youtube.com/watch?v=sTav3JaHU2I>(검색일: 2020/12/20).

투고일 : 2021년 1월 15일 . 심사일 : 2021년 1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월 30일

* 정태일은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요연구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검토(2020)”,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판적 분석(2019)”,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인권의 위기의식 분석(2019)” 등이 있다.

* 최예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요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방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6)”, “계약관리요인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2014)” 등이 있다.

* 김연희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최근 주요 연구로는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검토”가 있으며, 현재 학위논문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민주화 이전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

<Abstract>

The Soft Power Effect of BTS

Chung, Tae-Il · Choi, Ye-Na · Kim, Yean-Ho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199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ifted from a military-oriented hard power to a soft power that values culture and morality. Soft power is the opposite of hard power, which secures its national interests through the superiority of military power, a physical means, and the ability to get what one wants by attracting people's minds rather than by force or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BTS's activity from a soft power perspective. First, in the effect of spread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BTS sublimated Korean cultural heritage into universal value of mankind by apply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choreography. Second, i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TS contributed to the globalization of Hangeul by applying the Korean alphabet, the identity of Korea, to the song. Third, in the universal effect of human rights and peace, BTS tried to spread th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by UNICEF activities, atomic bomb T-shirts, Nazi-style hats, and opinions on the Korean War. In conclusion, the soft power effect of BTS contributed to the future-oriented values by reconstructing Korean traditional dances to spread consensus on Korean culture, forming a friendly feeling toward Hangeul through Korean lyrics, and spreading the perception that peace is more important than war.

Keywords: Soft Power, BTS, Spread of Traditional Culture, Globalization of Hangeul, Universal Human Rights